

< 민주연구원 토론회 >

「내 ‘일’이 있는 내일」 토론회 개최... ‘고용 없는 성장’ 해법 모색

-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2026년 7월 9일, 청년 고용 위기 극복과 AI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「내 ‘일’이 있는 내일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경제가 2026년 1분기 1.8% 성장하며 OECD 국가 중 덴마크(1.9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반등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고용 시장, 특히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‘고용 없는 성장’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"2026년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0.1% 감소하고, 특히 청년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6.4% 감소하는 등 '고용 없는 성장'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- 또한, "기술혁신과 AI에 의한 제조업 고용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"이라며, "AI와 사람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'고용 있는 성장'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-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과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**청년 고용 현황과 원인:**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6.1%이며,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이는 저성장 기조, 국

가주도 대기업 수출 위주 성장,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미스매치,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었다.

- **산업 구조 변화와 대응:** 제조업은 최근 10년간 생산량 1% 성장 대비 고용 성장률이 0.03%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 창출력이 낮아졌다. AI 전환(AI)으로 인한 제조업의 변화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, 청년들이 AI 역량을 갖추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.
- **정책 제언:** 고용장려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일자리 정보 공시제 도입, 취업취약계층 지원의 유연성 확보,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.

○ 민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, AI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.

-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,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,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이 발제를,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,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,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.

※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
(2026. 7. 9. 목. 오후 2시)

[붙임] 내 '일'이 있는 내일: 청년고용의 길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

민주연구원 토론회

내 '일'이 있는 내일: 청년고용의 길을 찾다

2026년 **7월 9일**(목) 14:00 ~ 16:00
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



좌 장 이주희 국회의원

사 회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

발표 1 고용동향·거시경제지표로 살펴본 청년고용상황과
산업·제정책의 방향
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

발표 2 청년고용상황과 청년고용정책 평가
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토 론 경제계가 생각하는 청년고용 문제와 그 대책
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
정부와 민주당의 청년고용정책 평가 및 대안
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
새로운 청년고용정책 제안
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 본부장